



충청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 전화 (043)220-5123/ (월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심의



▲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을 심의하였다.

제270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는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현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전체의원 화합행사,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방문단 우리 도의회 예방, '08 지역균형발전지향의회의회정기회 참관, 제3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회의운영 관련 법규집에 대한 이해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조례안 설명과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바이오과학관 신축현장, 남일-문의간 국지도 건설사업 현장, 충북학사 건립예정지, 농정 관련 사업장과 도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김광수 후보 도의원 당선



김광수 의원
(청주 제1선거구)

6월 4일 실시된 청주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김광수 의원이 당선되었다.

상당구청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균형 잡힌 도정운영, 일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히며,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 회 기 : 2008. 6. 19. ~ 6. 26.(8일간)

일시	부의안건	각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
6. 19. (14: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8. 6. 19. ~ 6. 26. (8일간) 2. 기타 안건 처리	의회운영위원회 •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주요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 • 충청북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간담회 • 도정관련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 주요현안처리
6. 20. ~ 6. 25.	● 본회의 휴회 ※ 상임위원회 활동 • 의안심사 • 주요사업 현장 방문 • 기타 안건 처리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정관련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 주요현안처리 산업경제위원회 • 도정관련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 주요현안처리
6. 26. (11:00)	● 상임위원회 활동 ※ 제2차 본회의 1. 부의 안건 처리 2. 기타 안건 처리	건설문화위원회 • 도정관련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 조례안 상정 • 주요현안처리

개 회 사

새 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에 역행되지 않도록 효과적 대응



이 기 동 시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력이 넘치는 실록의 계절 5월에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뚝배기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농번기 일손현장과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예산확보와 영농준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교육발전 등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4조원이 넘는 투자유치로 경제특별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뜻 깊은 달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을 맞아 건전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내 가정은 물론 이웃과 사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한해도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와 적기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단, 앞으로도 예방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수도권 규제문제 등 새 정부의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태세가 늘 준비되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13일간의 일정으로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효율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도민을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송 은 섭 위원장
(건설문화위원회)

우리나라는 거주 외국인이 약 100만명 시대를 맞고 있으며 그중 자녀가 2,307명이나 된다고 한다.

외국인들은 90%가 산업일꾼과 이주여성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편견, 언어소통, 노무문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

다행히 지난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되어 외국인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합복지센터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에 10억원, 한국사

회 조기정착지원에 5억원 등 11개 사업에 19억 2,330만원을 지원하고외국인 이주노동자센터에 1,6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도도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자치행정국, 경제투자본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나뉘어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한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 외국인 기본정책수립, 근로자 인권보호, 다문화가정의 맞춤형 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언어장벽, 가난, 소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본도의 교육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교육감께서는 본도의 거주 외국인을 원어민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어린이들에게 언어소통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진천경찰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역사만화책 보내기 운동'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찬회 개최



▲ 5월 15일 다양한 정보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충청북도의회는 2008년 5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대학교 이의용 교수를 초빙하여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변화의 물결 속에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치와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요구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고장 출신 수필가 중

앙대학교 이의용 교수를 초빙하여 'Let's 通!'이란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의용 교수는 강연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의 능력이며,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설득)하고 상대방의 표현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태도와 방법을 연습하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커넥터'로 변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의결

- 충청북도 2조 5,317억원, 도교육청 1조 4,886억원 -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화수)는 제270회 임시회 회기(5.15 ~ 5.27) 중 5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틀동안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다.

이번 종합심사는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 과

다하게 계상된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개 사업에서 22억 1,55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보다 7.4%인 1,752억 4,197만 9천원이 증액된 2조 5,317억 401만 2천원의 예산을 확정 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사업에서 13억 5,6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8.7%인 1,186억 1,367만 3천원이 증액된 1조 4,886억 3,846만 1천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 간담회 5월 21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계	2,356,462,033	2,531,704,012	175,241,979
일 반 회 계	1,951,688,255	2,104,130,233	152,441,978
특 별 회 계	404,773,778	427,573,779	22,800,001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액	증·감
계	1,370,024,788	1,488,638,461	118,613,673
유아및초중등교육	1,313,251,868	1,403,324,433	90,072,575
평생·직업교육	1,828,458	2,709,496	881,038
교 육 일 반	54,944,462	82,604,522	27,660,060



▲ 예산안심사 5월 21일 소관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



간담회 ▶
5월 15일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 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다.



◀ 현안심사
5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5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8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2008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 67억 9,227만1천원 보다 4.23%인 2억 8,730만원이 증가된 70억 7,957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지원 차량구입비 등의 사업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향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제271회 임시회(2008. 6. 19. ~ 6. 26.)의사일정은 6월 19일에 회기

결과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6월 21일 제2차 본 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계획은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연구등락을 신청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정 등 도내에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새로운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써 연구과제의 타당성 등을 인정하여 승인 의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의원 연구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위원회

연구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제정



▲ 간담회 5월 15일 자치행정국 등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8년 5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13일간 열린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며 내

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비효율적이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60백만원), 충북 헬렌지

2008 개최(100백만원) 등 7개사업에 대해 26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다.

그리고 5월 19일 열린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및 「충청북도 도정배심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시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 토론 후 제·개정 취지를 공감하여 모두 가결하였다. 특히 강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 전원(7명)이 연서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지방행정수행에 있어 정책연구용역의 비중과 중요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 그 타당성과 활용성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당 5천만원이상의 연구용역은 시행전에 사전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연구용역이 1회성으로 그치는 폐단을 차단

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용역결과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민중심의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 「충청북도 도정배심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버스,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의 결정과 같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결정, 도정 주요시책의 결정, 그리고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 등 도정 전반에 폭넓게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정의 신뢰성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최근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선 빈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갈등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5월 26일에는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정 현안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충북학사 및 충북회관 건립예정지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장주식)는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충북회관 건립 추진상황과 도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한 후속대책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앞장섰다.

5.19일 열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과 관련한 재단의 법외의무이행을 촉구하고 도교육청 관계관에게 좀 더 명확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법정전입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주문하고 2008년도에는 2007년도를 상회하는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져 점진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독려했으며, 사학재단의 책임회피로 인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며 최소한의 의무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심사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혈세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으며, 예산안 심의 결과 충청북도 소관 사업 중 사업효과가 미흡한 3건에 대한 13억 1,190만원과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사학관련 예산 등 3건에 대하여 13억 9,0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이어 열린 현안관련 간담회에서는 우리 도 인재의 요람인 충북회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했으며,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자율성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교육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 간담회 5월 15일 도교육청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예비심사 5월 15일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다.

산업경제위원회

명품 농촌만들기 지원사업 등 효율성 검토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운숙)는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농정본부, 농업기술원, 경제투자본부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5월 16일 실시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정본부와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잠재되어 있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이 가고 싶은 명품 농촌만들기 지원사업 등이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계상되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도민의 세금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농업기술원의 울타리 및

농수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마을 주민의 보행도로 안전 공간 조성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5월 19일 실시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의 사업비 계상에 대하여 일부 시·도가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지적하며, 이제 와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다.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총 5건에 43억 1,1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의 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예산안 심사 ▶

5월 16일 농정본부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업무보고 청취

5월 16일 시 청정지역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건설문화위원회

남일-문의간 도로건설 사업장 등 현지확인

현지확인 ▶

5월 16일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였다.



간담회 ▶

5월 15일 추경예산안 심사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08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관하여 선수단 및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바이오과학관 신축현장 및 남일-문의 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요인과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10% 절감 계획을 세우는데 일률적으로 절감계획을 세우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절감 및 전액 삭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지적하였으며, 군 단위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타 광역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의 경우 적자운영 등 여러 가지 운영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

단위 미술관 건립으로 인한 효과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세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없는 도로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바이오과학관 신축현장 및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 사업현장 방문에서는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것과 공사 완공으로 주민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2008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충북선수단의 사기를 진작 시켰으며, 실버축구선수단, 검도선수단 등 7종의 개별종목 경기장을 방문하여 필승을 다짐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참가선수 및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칼럼



조영재 부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한미FTA가 타결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의 시름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대비 외에도 미래의 경쟁력 있는 농업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였으며, 국가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농업도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미래에도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보다 16년 먼저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1992년

FTA(NAFTA) 체결 이후 산업기반이 급속도로 붕괴되었다. 특히, 노동자, 농민, 중산층 등이 절대 빈곤계층으로 추락하였다. 약 200만명 이상의 농민이 멕시코를 떠났으며,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업 상태이다. FTA 체결 이후 외국인의 투자는 4배 이상 급증하고, 수출은 3배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그 존립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멕시코의 농촌 붕괴는 FTA 체결 이후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미래를 위한 준비 없이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멕시코의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는 한미FTA 타결 이후 도내 농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농업명품도」건설을 내세우고, 「가고싶은 농촌 살고싶은 농촌」만들기에 애쓰고 있다.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산물명품화」,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와임브랜드」 육성 그리고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농업인력양

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추구만으로는 충북의 농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충북의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최고(Best)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유일(Only)이 필요한 때이다. 지역의 농업은 지역의 특성을 살렸을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농촌이 같은 농업을 지향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모든 농촌이 같은 농업을 한다면 수많은 농촌이 다 실패하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하나의 농촌만이 살아남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최고(Best)가 아니라 유일한(Only) 농업 즉,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연계된 식품산업 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한 농업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따라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시켜 고부가가치화된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3월 “신지역발전과 산업클러스터”라는 주제로 영동에서 세미나가 열렸

다. 여기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영동의 예로서 포도클러스터가 제시되었다. 우리 영동은 와인코리아라는 와인회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와인코리아는 영동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단순한 포도의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으로 연계하여 와인을 만들고 또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생산 위주의 농업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험난한 농업환경을 극복할 수 없으며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체계적 농산업으로의 체질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다. 농업을 2차산업으로 다시 3차산업으로 연계시켜 고부가가치화시킬 때 지역 농업은 명품화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충청북도는 더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한다. 농민과 소통하고, 농민의 뜻을 알고, 농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줄 아는 현명하고 섬세한 농정을 펼치는 충청북도가 되길 기대한다.

의원칼럼



김화수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경제 위기 초래 지방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공장 총량제를 위시한 대학 총량제, 3대 권역제 폐지, 대규모 개발사업 허용, 공장임지 규제 해제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용지와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공장 건설, 택지 조성, 학교 신·증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충북에 자

리 잡았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유턴하고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에 공장 대하이 들어서는 등 수도권 규제 덕에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던 지방경제가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것이다.

더욱이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12개 공공기관의 이전 규모 등도 축소 또는 백지화될 것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방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확고히 마련한 이후에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 광역 인프라 구축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방 연구개발시설 확충, 지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대책을 우선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충북도 12개시군 균형발전 정책

정부의 지방균형 발전과 아울러 충북도의 지역간 균형발전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갖춘 우리 도는 갈수록 농촌과 도시간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다행히 지역격차를 우려한 충북도가 최근 시군별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모은다.

지역간 격차를 줄여 충북 전체가 잘살기 위한 시군별 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2020년까지 5580억원을 투자, 충주시에 첨단산업과 관광·휴양, 제천시 한방·휴양과 영상·관광, 증평군 인삼·휴양, 태양광산업, 괴산군 전통발효식품과 체험관광, 단양군 관광과 석회석 신소재, 보은군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옥천군 목목산업 특구, 영동군 국악체험촌 건립 등을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민의 기대 부응한 미래 가치 담아야

IMF위기를 IT가 풀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만한 미래 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가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발표한

10대 성장동력산업에는 디지털TV·방송,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바이오신약 등이 포함된다. 과거 성장전략이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려 생산량을 증대하는데 초점을 맞춘데 비해 연구·개발(R&D)투자, 인력양성 등 생산시스템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다.

충북도가 이번에 제시한 신성장동력 또한 향후 10~20년 후 충북의 미래 비전을 담보한다.

태양광 산업, 석회석신소재개발 등 차세대 에너지·소재 산업을 비롯해 관광,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을 계승한 면이 많아 신선함이 덜하며, 미래 충북의 경제 가치를 제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엿보인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모쪼록 충북도는 이번에 선정한 12개 시·군의 특화산업이 미래 충북지역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보다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차후 보완해 구현하길 촉구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민 자전거 타기



진 영 진

전 도의회자문위원
현 청주시 교육감학회장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비산유국으로 막대한 외화를 들여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요즘은 유가가 135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그칠 줄 모르고 나날이 치솟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물론 가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7년도 4·4분기 차량용 석유 소비량을 살펴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15%가 증가하고, 휘발유의 경우는 2007년 평균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26%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 원인중의 하나가 매년 차량이 증가하는데 있다고 한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로 인한 유류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운동으로 '도민 자전거 타기 운동'을 당국에 긴급 제안하며 그 이유를 몇 가지 적어본다.

첫째 도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좋다.

둘째 교통체증을 완화시킨다.

셋째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연료가 절약된다.

넷째 자동차처럼 매연을 배출하지 않아 공기 오염을 방지한다.

다섯째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청주시에서는 무심천에 자전거 도로 11.2km를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19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 상반기까지 5.3km를 연장한다고 한다.

조속히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대만을 여행하면서 거리에 자전거 인파가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겸손한 민족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서도 교통난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자전거 출·퇴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또한 고유가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충청북도에서도 자전거 타기 범 도민 운동의 일환으로 우선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자전거로 출·퇴근을 실시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도민에게 확산·보급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의 시범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충청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위촉



▲ 5월 28일 도의회 의정실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8명을 위촉하고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태원·김법기 도의원, 이한동·양승범 세무사, 김창성·최민철 회계사, 이기욱·안용균 전 공무원)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 5월 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보은 동광초등학교 학생과 옥천 삼양초등학교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주요처리안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적용범위
-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을 대상으로함.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정책연구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및 활용
-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행정심판·행정처분과 도정 주요정책 결정시 도정배심원제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정배심원단 심의 대상
- 도정배심원단 운영 및 의견 반영 등.

[수정내용]

-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함
- 운영부서장의 과도한 재량 축소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학교급식에 지역 및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WTO협정 위배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WTO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근거 마련

[주요내용]

- 학교급식, 급식경비, 우수 식재료의 정의
- 학교급식 지원대상,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 등

[수정내용]

-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 제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지사의 여비 지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하도록 함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함
- 「공무원여비규정」준용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청주의료원에 재할 치료와 호스피스 등 통합진료 치료 공간으로 특수 병동을 증축하여 도민에게 고품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
- 사업기간 : 2008. 5~2010. 11(3년간)
- 사업비 : 5,960백만원(국비 2,980백만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 위치 및 업무를 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설치목적, 위치
-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장의 사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과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수수료 징수 면제대상 확대
- 고등학교 매정에 따른 입학배정수수료 삭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의원동정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5월 16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대추축제 임시총회에 참석, 친환경 경관농업과 연계한 대추축제 주관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5월 26일 서울시에 있는 충북학사 및 충북회관 건립예정지를 방문, 학사 시설 확인 및 학생 의견 수렴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5월 26일 영동천 둔지에서 열린 영동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6월 1~10일 영농철을 맞아 청원군 관내 영농현장을 방문,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5월 10~11일 단양에서 열린 제10회 문화관광부장관상차지 전국길거리농구대회 개최기 및 지역 활성화 모색



◀ **연만호 의원**
(증평 제2선거구)

5월 29~31일 증평군 보강전 일원에서 열린 증평문화예술의 날 축제에 참석,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최광옥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5월 21일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에서 열린 소비자 교육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규원 의원**
(옥천 제1선거구)

6월 9일 옥천군 군서면에서 119소방안전대 신축방안을 협의,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5월 11일 괴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괴산읍민의 날 기념 한마당 호도큰잔치에 참석, 환담 및 관계자 격려



◀ **이중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5월 9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교육비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제도 개선 협의



◀ **최미애 의원**
(비례대표 · 통합신당)

5월 27일 여성정치세력연대에서 주관하는 의료보험민영화 관련 화요이수토론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5월 28일 보은군 자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연송적십자주관 경로한마음큰잔치 행사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최재옥 의원**
(증평 제1선거구)

5월 14일 청주일원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소년체전 참가자와 도내 초·중등부 씨름선수단 및 관계자 격려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5월 21일 영동천 둔치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6월 6일 옥천군 이원면 흥촌탐에서 열린 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석, 참배 및 행사 관계자 격려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5월 27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투자유치 출판기념회 및 경축행사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5월 7일 남일 쌍수공원 및 남이복지관에서 열린 남일·남이면 경로행사 및 호도잔치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5월 26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충청북도 15조 물과 투자유치사례 출판기념회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5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단의료단지 유치위원 제4차 회의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5월 26~29일 제천시 외자유치를 위하여 중국 현지를 출장방문, 다각적인 외자유치 추진 및 관계자 격려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5월 13~14일 전남에서 열린 목포해양특구 및 함평 생태공원 홍보행사에 참석, 제천한방엑스포 홍보팀 격려



◀ **강태원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6월 4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지방행정 정보화 연찬회에 참석, 도민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6월 4일 2008년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5월 15일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에서 열린 남북누리나눔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5월 28일 후련드리호텔에서 충주온천 활성화 제2차 토론회 개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



◀ **김한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5월 17일 제천 대원과학대체육관에서 열린 북부 5개 시·군 운전직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5월 31일 단양 구인사에서 열린 상월원각대조사 제34주기 열반대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5월 31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청주시 사직동직능단체 연찬토론회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